

재외동포의



2012 7 월호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  
'화합' 과 '소통' 으로 성료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선암사 승선교 과학과 예술의 절묘한 만남

우리 조상들은 다리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과학의 힘과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예술의 기가 돌다리에 담겨 있다. 돌다리는 다리 밑이 무지개처럼 휘어 있는 반원형의 홍예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명 아치교, 홍교, 무지개다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홍예교는 하천 양쪽에서 돌을 쌓아 올라가다 중앙에 이맛돌이라는 썸뿔모양의 돌을 넣어서 완성한다. 이맛돌만 빠지지 않으면 홍예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의 승선교(보물 제400호). 조선 후기에 축조된 돌다리로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다리'라는 이름처럼 계곡과 돌다리가 어우러진 모습이 일품이다. 이 다리는 옛날 7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한 다음 승천했다는 얘기에서 유래돼 붙여진 이름이다.



04



14



18

# Contents 2012 7월호

02	<b>한국의 열</b>	선암사 승선교 과학과 예술의 절묘한 만남
03	<b>목차</b>	
04	<b>특집</b>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길을 찾다 '화합'과 '소통'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 성황리 마쳐
12	<b>포커스</b>	"흥겨운 지구촌 잔치, 해양 강국 자부심 느꼈다" 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여수해양엑스포 참관
13	<b>한상칼럼</b>	한상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 구심점 돼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14	<b>기획</b>	모국 체험 통해 정체성·리더십 키운다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7월10일부터 개최
16	<b>화제</b>	소재 다양화... '동포문학' 새장르 형성 제14회 재외동포문학상 심사 "수준 높아졌다"
18	<b>현장의 목소리</b>	"전통가락 익히며 조국을 가슴에 품다" 고려인 동포들 남도국악원서 '모국' 체험
20	<b>OKF 뉴스 광장</b>	동포재단 이사장 '아중동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격려' 외
21	<b>한글학교 탐방</b>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위한 사랑의 한글 배움터 베트남 사이공 한글학교
22	<b>글로벌 코리안</b>	세계시장 무대로 도전 195차례 '창업 성공' 실리콘밸리 벤처 한인 선두주자 '비컴닷컴' 마이클 양
23	<b>지구촌 통신원</b>	백악관, 한인 지도자들에 '국정브리핑' "역사적인 날... 한인들의 미래는 밝을 것"
24	<b>나의 살던 고향</b>	대관령 목장을 품고, 동해 바다에 안긴 강릉
26	<b>재단공지 및 독자후기</b>	



**표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속의 일류 한인'이란 주제 속에 열려 동포사회와 모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속의 일류 한인'이란 주제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웨라톤 위커킬호텔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참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회를 열고 격려했다. 사진 앞줄 좌측부터 최발레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회장, 박중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명박 대통령, 장흥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노윤호 아르헨티나 한인회장,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뚝줄 좌측부터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 임도재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길을 찾다

‘화합’과 ‘소통’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 성황리 마쳐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각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듣고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 절차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려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정세와 통일정책’ 특강을 비롯해 한구현 한류연구소 소장의 특강, 탈북자의 안보특강 등도 열렸다.

**전** 세계 73개국의 한인회 회장과 임원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웨라톤 위커킬호텔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 13회째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하나된 세계 한인, 세계속의 일류 한인’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한인회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지방 행사를 없애 한인회 간 교류의 시간을 대폭 늘리고, 강연과 토론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회의 집중도를 높였다.

## 한인회장들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연합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을 비롯해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 모두 화합을 해 한목소리로 대회에 참석했고 어느 때보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포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 일치를 이룬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속의 일류 한인'이란 주제로 열렸다.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온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인회간의 교류와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코리아' 구현에 한인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인식시켰다.

동포사회는 비록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면 하나라서 모국의 발전이 곧 여러분의 위상"이라며 "거주하는 국가에서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살도록 힘껏 뒷받침할 테니 동포사회 결속을 잘 이끌고 인재를 많이 배출해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돼 달라"고 밝혔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는 한인회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인회장들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해가 갈수록 한인사회는 성장하고 있다"며 "거주국 내의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각 한인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성숙한 일류 한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특히 이번 한인회장대회를 통해 다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 김로만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머나먼 타지에서 분골쇄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이며,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라고 격려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모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할 수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민족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으며, 이번 대회 공동의장은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장흥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 정치권, "재외국민선거 투표절차 간소화 강조"

대회 이틀째인 27일에는 12월 대선에서 재외동포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회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 서울 웨라 밴드워커힐 호텔



김항식 국무총리는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인회장들에게 "동포사회 결속을 잘 이끌고 인재를 많이 배출해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회가 재외동포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에 열린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포럼'에는 새누리당 홍문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결과와 의의를 토대로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홍문중 의원은 "재외선거권 부여가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외부재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재외선거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한국학교,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곤 의원은 “19대 총선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국내의 선거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편이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회장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당의 정책 발표 이후, 한인회장들과 함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열린 토론을 펼쳤다.

오후에는 특강과 지역별 현안토론이 진행됐다. 특강I에서는 한구현 한류연구소 소장이 ‘청출어람-한류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 소장은 K-POP과 드라마 등 전 세계적 트렌드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면서 현장에 모인 한인회장들에게 “한류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별 현안토론에서 한인회장들은 ‘한인회의 한국어 교육 기여 방안’을 주제로 각 지역별 한인 차세대 교육과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은 유럽, 아중동, 북미, 중남미, 일본, 러시아·CIS, 중국, 아시아, 대양주 등 9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재철레한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장흥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한류열풍으로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운 지금, 한글교실 개최 등 한인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별 현안토론이 끝나고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의 만찬이 이어졌다.

### 평화 통일 기반 조성 등 결의문 채택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인회장들은 재외선거 관련법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업정 중립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인회장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재외선거 관련법의 제도적 보완 촉구, 모국과 거주국의 공동번영과 우호친선 확대, 재외동포 교류센터의 조속한 건립 촉구,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의 적극 동참 등 총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26일 진행된 지역별 현안토론의 결과(주제: 한인회의 한국어 교육 기여 방안)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가나, 미국 달라스,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등 5개 지역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한인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도재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가나한인회에서 아프리



지역별 현안토론에서 한인회장들은 ‘한인회의 한국어 교육 기여 방안’을 주제로 각 지역별 한인 차세대 교육과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 행사를 없애 한인회 간 교류의 시간을 대폭 늘리고, 강연과 토론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회의 집중도를 높였다.

카 최초의 한인회관을 건립해 한인들의 친목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고, ‘가나한인상공인협회’를 만들어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의 무역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내년 대회의 공동의장으로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과 오공태 재일민단중앙본부 단장이 선출됐다.

이날 열린 폐회식에서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 대회 의장인 장흥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송사에서 “재외동포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듯 대회 기간 동안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큰 관심이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한인회가 재외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폐회식에 이어 진행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회 마지막 날인 29일에 한인회장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최 ‘세계한인회장 초청다과회’에 참석했다. **장**

## “차세대 육성이 한인사회 최우선 과제”

장흥근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한민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재외동포가 곧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내가 처음 칠레에 이민한 25년 전에 비하면 재외 동포들에 대한 모국의 지원이 훨씬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오지 한인회장들도 대회에 참여하길 바라지만 예산문제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동포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이민 1.5세 이상을 일컫는 차세대”라며 “이들을 끌어안고 가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히 한민족 정체성의 기본이 되는 한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아울러 “지난 총선에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했지만, 대선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은 훨씬 뜨겁다”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우편투표나 온라인투표 도입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 1987년 칠레 산티아고로 이민한 뒤 잡화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칠레 한글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세계 한인회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서로 장점을 최대한 배우고,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지길 바랍니다.”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장흥근(75) 중

## “이민 2세대 주류사회 진출 활발”

이백수 브라질 한인회장



“내년은 브라질 한인이민 50주년입니다. 브라질 동포 6만 명 대부분이 중산층에 자리 잡았고, 2세대들은 활발히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백수(63) 브라질한인회 회장은 브라질 동포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며 ‘브라질 이민 50주년’에 대한 모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브라질에 대한 공식적인 이민은 1963년 2월12일 100여명이 산투스항에 도착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당초 영농이 목적이었지만 산업화와 공업화 바람을 타고 도시로 이주, 지금은 80% 이상이 의류·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이 회장은 “브라질 동포들의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기약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50주년 기념식과 같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 년 내내 행사를 개최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질 한인회는 내년 1월 서울시청에서 이민사를 담은 사진전을 열고 2월에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이민 50년’을 주제로 현지 삼바축제에 참여한다. 또 상파울루 시에 팔각 정자를 짓고 패션 중심 거리인 봉헤찌로에 한국거리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1960년대에 외국에서 살겠다고 배를 탄 이민자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개척정신을 가진 엘리트집단”이라며 “이들이 브라질에 와서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실함으로 일했기에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민 2세대의 경우 판·검사 24명, 변호사 150여명, 대학 강사와 교수가 50~60명이며 공식 진출자 또한 나날이 늘고 있다”고 자랑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이 회장은 1983년 브라질에 이민해 의류·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재 브라질체육회 회장으로서 교포축구팀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 평양선발팀과 친선경기를 갖기도 했다.

## “천혜의 경관 농업투자 유망”

이광복 조지아 한인회장



아시아대륙 북서부,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고 캅카스산맥과 흑해 연안에 접한 아름다운 나라 조지아(그루지야)에는 4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살고 있다.

한인회를 이끄는 이광복(44) 회장은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하고 의리 있는 현지인들에 반해 조지아에 정착했다”며 “겉을 모르는 타고난 성격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2006년에 설립됐다. 초대 회장을 2년 맡았다가 지난해 다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작은 한인회다보니 가족같이 지낸다. 평소에는 등산 및 볼링 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고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함께 모여 행사를 치른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캅카스(코카서스) 3국’이라 불리는 나라로 이들 3국은 19세기 초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됐다가 독립,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동유럽에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

비철금속 사업가인 이 씨는 폐여객기와 탄피 등을 사들여 철 이외의 공업용 금속인 구리·황동·알루미늄·니켈·티타늄 등을 거둬들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되파는 일을 한다. ‘대형 고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씨의 사업은 올해 3천만 달러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조지아는 외인의 발상지”라며 “온화한 4계절과 천연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조지아의 비옥한 토양 및 저렴한 인건비가 결합되면 좋은 농업부흥을 가져 올수 있다”며 한국의 농업투자를 권했다.

## “가족같이 서로 돕는 한인회로”

최경렬 마다가스카 한인회장



아프리카 동남부에 대륙과 떨어져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는 한반도의 3배 면적에 1천500만 명이 사는 최빈국이다. 이곳에도 150여 명의 한인들이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 모여 산다.

최경렬(62) 한인회장은 “한인 이주 역사는 20년 정도다. 대부분 중고자동차 및 부품 수입과 식당, 여행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마다가스카에는 북한 대사관이 들어와 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사관에서 관할한다. 최 회장은 “군부 쿠데타로 과도정부 상태”라며 “정치가 안정되면 많은 지하자원으로 인해서 개발이 기대되는 나라다”고 밝혔다.

한인 자녀들을 위해 한인회가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에 한인회가 주관한 잔치를 열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자녀들은 고교를 졸업하면 프랑스로 유학을 많이 가고 있다.

한인 인구가 적고 수도에 몰려 살다보니 가족같이 서로 돕고 지낸다. 최 회장은 “한국 기업의 후원으로 영부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신발 1만 켤레를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한인들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다가스카는 광물의 보고”라며 “구리, 철광석, 석탄, 사파이어, 루비, 금 등이 개발이 안된것도 많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고 내년 대선을 치르고 나면 정치적으로 안정돼 외국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뉴커머와 민단 상생 발전할 것”

박양기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회장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는 2010년 9월에 설립됐다.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확대 및 유학생 증가로 대거 일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통칭 ‘뉴커머’라고 한다.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는 뉴커머들의 모임이다. 일본에는 식민지 시대를 전후해 건너온 재일동포들이 있는데 민단으로 불리는 이들과 달리 뉴커머들은 그동안 대표하는 조직이 없었다.

현재 일본사회에는 뉴커머들이 18만 명 정도 살고 있다.

박양기(54)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회장은 “민단의 선배들이 오랜 세월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싸우며 자리를 잡아온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뉴커머들의 자생적 모임인 연합회가 뿌리를 내리면 민단과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뉴커머들은 무역업 및 자영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본 정착을 위한 법적 문제를 비롯해 자녀 교육 및 취업 등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한인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서 한인끼리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긴급사태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한인회를 발족시키는 밑거름이 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5월 22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지원 한마당 행사를 크게 열었는데 12개 재일 한인 동포단체가 협력했다”며 “올드커머인 민단과 뉴커머들의 교류 및 협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이주한인과 입양인이 공존하는 조직”

김태자 스웨덴 한인회장



“스웨덴의 이주 한인은 3천명, 입양 한인은 1만 명입니다. 스웨덴 한인회는 이들 1만3천여 명을 평등하게 아우르는 특별한 조직입니다.”

김태자(67·여) 스웨덴 한인회장은 스웨덴이 세계에서 인구대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한국 아동을 입양한 국가라며 한인 차세대와 입양인 모두를 위한 한인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6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민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해 왔고, 작년 1월 34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의 한인 입양인들은 대부분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 전문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중산층을 이루고 있다”며 “입양인들을 보면 잘 자라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30년 전에는 스웨덴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이 한국에서 입양온 아동과 양부모를 수시로 만나 적응을 도왔고, 10년 전에는 한국식당을 운영하던 한인이 입양인들에게 한식을 전파하는 등 이주 한인과 입양인들이 활발히 교류해왔다.

그는 “스웨덴 이민 1세대는 60대 이상으로 나이가 들었고, 2세대를 거쳐 3세대는 벌써 10대가 됐다”며 “이제는 차세대들에게 한인회 운영을 비롯한 네트워크 중심을 넘길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회장은 회장 취임 후 한인 차세대와 입양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미래비전 포럼’을 3차례 개최했다. 또 작년 여름에 이어 올 8월에는 3주간 한국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한인 차세대와 입양인 모두 공통으로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한다”며 “지난해 집중교육을 받은 30명 모두 좋은 평가를 했고, 올해 프로그램에도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창**

## 李대통령 “한국교민은 뭔가 다르다는 소리 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9일 세계한인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 활동을 통해 국력을 더욱 신장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세계한인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주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 영토가 넓어진 데 대해 자긍심을 나타내

고,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 활동을 통해 국력을 더욱 신장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독립해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우리가 지구상에 처음”이라면서 “최근에는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겨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어렵지만 지혜롭게 해서 위기를 넘기자”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지만 다행히 FTA로 경제영토를 세계에서 3번째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4개국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국력이 신장돼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교민이 다 잘살아도 옆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면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할 도리를 하고 살면 한국 교민은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한국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인회장들 국내 소외층에 3년째 장학금

대회에 참가한 한인회장들은 26일 개막식에서 장학금 2천500만 원을 모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장학금 기부는 올해로 3년째로 한인회장들이 국가인재육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재정보조 필요성에 공감하여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기부가 이뤄졌으며, 이 기부금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우 등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교육소의 계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왔다.

한국장학재단은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부금으로 2012년 1학기에 총 1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했으며, 2012년 2학기에는 8명을 추가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며 모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장 및 한인회 회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고 밝혔다.



한인회장들은 6월 26일 개막식에서 장학금 2천500만 원을 모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인 광운대학교 이태준 학생은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공부하는 상황에서 뜻밖의 장학금으로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인회장님들께 감사하며, 훗날 나 자신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하루 전인 6월 25일에 한인회장 150여 명이 KBS 가요무대를 참관했다. KBS는 이날 가요무대를 찾은 한인회장들을 위해 '고향'과 '향수'를 담은 노래를 선보여 타향살이의 설움을 위로했다.

## 가요무대 참관 “위로와 신명나는 시간”

대회 하루 전인 25일에는 미리 모국을 찾아온 한인회장 150여 명이 KBS 가요무대를 참관했다. KBS는 이날 가요무대를 찾은 한인회장들을 위해 ‘고향’과 ‘향수’를 담은 노래를 선곡해서 무대에 선보였다.

가요무대를 진행한 김동건 아나운서는 “머나먼 낯선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열심히 살아온 동포 분들이야 말로 애국자”라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인회장들은 고향을 그리는 노래에는 가슴이 찡하다가도 흥겨

운 트로트 노래에는 박수를 치며 열심히 따라 부르기도 했다.

김태자 스웨덴 한인회장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고향노래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오늘 들은 노래 중에 마음에 들은 노래를 배워서 앞으로 18번으로 할 생각이다”라며 활짝 웃었다.

KBS 가요무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나간 이민자와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현장, 원양어선 종사자들에게 모국의 정겨운 노래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인회장들은 해외에서 시청하던 프로를 직접 모국에 와서 바로 앞에서 유명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또 “그동안 역경을 딛고 거주국에서 잘 정착한 자랑스러운 동포”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가득 뿌듯함을 느꼈다.

## 한인회 여성참여 늘어나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여성 한인회장들은 각 지역 여성들이 한인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인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27일 오후 세계한인여성유권자총연합회(이효정 회장)가 자리를 마련한 여성 리더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들의 한인회 참여율이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인사회에서 여성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헬렌 장 미주총연 상임이사는 “섬세한 여성들은 조직의 수장을 맡으면 임기 마무리도 깔끔하게 처리한다”며 “일부에선 여성들이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비리가 적다. 여성리더들이 한인사회에

서 더욱 많이 나와야 한인회도 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자 스웨덴 한인회장은 “타 지역에 비해 유럽, 특히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파워가 크다”며 “여성의 장점인 세심함이 한인회를 튼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자 유럽총연 부회장은 “각 나라 여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인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들이 서로 연계해 협조하고, 알찬 정보도 공유하는 노력을 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럽총연 조현자 부회장, 재아르헨티나한인회 노운호 회장, 재스웨덴한인회 김태자 회장, 재독일도르트문트한인회 최월아 회장, 미주총연 김소희 부회장(연합코리아뉴스 발행인), 미주총연 헬렌장 상임이사(대변인), 대양주총연 정경옥 수석 부회장(남부호주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



▲ 참가자들은 여수엑스포 이외에도 순천 낙안읍성, 선암사 등을 방문했다. 선암사에는 대웅전과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찰이다.  
 ◀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장학생 95명을 대상으로 6월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수해양엑스포를 비롯한남도 일대에서 모국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 “흥겨운 지구촌 잔치, 해양 강국 자부심 느꼈다”

## 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여수해양엑스포 참관

**재**외동포재단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지에서 초청해 온 동포 장학생 95명을 대상으로 6월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모국역사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장학생들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2012 여수해양엑스포를 비롯하여, 순천 낙안읍성, 선암사 등을 방문했다.

재단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여수엑스포를 관람하며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선 조국의 발전상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온 엄선옥(경희대 의상학과 2학년) 장학생은 “첫날 미래를 조명하는 최첨단 해양엑스포를 관람하고 다음날 바로 한국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현장을 방문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체류 기간 내 한국에서 이뤄지는 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테말라에서 온 유지인(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학생은 “웅장한

규모와 첨단 과학이 선보인 엑스포를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모국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할 게 없는 강국이란 자부심이 들었다”며 “대기업관을 견학하면서 자신도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선업계 분야 선진국인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배우려고 브라질에서 유학 온 김민찬

(한국해양대 조선시스템공학과 3학년) 학생은 “해양과 관련된 자원, 산업, 환경, 문화를 비롯해 조선, 수족관, 수산 등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엑스포에서 경험했다”며 “세계 각국의 미래의 해양과 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예정으로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선조의 고향을 직접 접해보려는 뿌리에 대한 갈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하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체험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조국을 느끼고 또 국토에 대한 애정과 유학생간의 교류를 심화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이 선발된 장학생이 뽑힌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재단의 동포 초청 장학 사업은 우수한 학생의 모국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정체성과 세계화된 지식과 사고를 하는 인적 자원으로 키우는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장**

# 한상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 구심점 돼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아시아를 주목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가 간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세계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가운데 그나마 건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아시아 국가가 대안이 되고 있다.

아시아가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 즉 협력의 경제학이다. 협력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무역협정(FTA)다. FTA 협력 체계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시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위기 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상은 한국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세계에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한상들의 굳건한 네트워크는 이미 다른 나라 이민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각 나라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사회로부터도 아낌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

이제 한상은 단순한 한국인 경제인의 모임이 아니다. 10년을 넘어선 만큼 후진 양성과 사회공헌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세대 한상 육성을 위해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한다. 1세대 한인 경제인들과 달리 2세나 3세 한인들은 조국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다. 한상 네트워크의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역 전문가들에게 한상의 시대적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줘 한민족 경제 사관생도로 육성하는 게 앞으로 한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또 한상이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한다. 그동안 한상은 제주, 부산, 대구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행사를 개최했다. 또 내년 한상 대회 개최지가 광주로 결정된 것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상의 사회적 공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상대회에도 한상 1000여 명이 이상이 고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화상들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각지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했지만 우리 한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했다.

이때 매일경제신문, 재외동포재단, 한인 경제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어 2002년 한상을 조직해 세계한상대회를 탄생시켰다.

이제 10년을 넘어 올해로 11번째를 맞는다. 첫 대회 1000명도 안 되던 참석자 수는 지난해 3300명으로 늘었다. 20여 개에 그쳤던 기업전시회 부스는 600여 개로 급증했다. 한상대회는 한인 경제인의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수익 달러 규모 거래 상담이 이뤄지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도약했다. 세계한상대회가 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로 발전한 것이다.

한상대회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제2의 한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상 글로벌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한상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한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직 한상 네트워크에 속하지 못한 동포 기업인들과 차세대 주자인 젊은 한상들 더 많이 찾아내야 하고, 한상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한상대회를 이제는 국외에서 개최해 볼만 하다. 중국 화상대회는 세계 각국을 돌며 개최한다. 세계한상대회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해외 개최지로는 미국 워싱턴DC나 뉴욕이 어떨까. 해외에서 열리면 해당 지역의 한상 결집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도 좀 더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상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올해로 11살을 맞은 한상의 새로운 10년을 기대한다. **장**

# 모국 체험 통해 정체성·리더십 키운다

##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7월10일부터 두차례 개최

**전** 세계 한인청소년 1천여 명이 모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 7월 대거 방한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오는 7월 10일(화)~16일(월), 24일(화)~30일(월)까지 2차에 걸쳐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진행하는 세계 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는 1998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순례연수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대학생을 초청,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인 청소년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참가자들이 단순한 강의청취, 산업시찰, 유적지 견학 및 관광 차원의 연수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강한 모국인상'을 경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 함양을 통

참가자들은 지방에서 농어촌 체험을 하며 '모국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해 속초에서 '어부체험'을 한 참가자들.





재외동포재단 초청 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는 7월 중에 2차례에 나눠서 1천명이 참가해 서울과 지방에서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국내 참가자들의 학교를 방문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에 6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연수에 400명 등 총 1천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던 모국방문사업이 재단으로 통합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모국의 정취도 느끼고 우정도 나누게 될 전망이다.

이번 연수는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을 본부로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 올림픽파크텔은 2008년 '최우수 청소년 수련시설'로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유스호텔이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한류(韓流)와 한국의 성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 간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국연수에 참가하는 대상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만13세~23세(2012.7.1기준)의 동포청소년,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4월 6일 사이에 현지 공관으로 서류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1주일간의 합숙 연수를 하게 되는데 서로 서먹서먹함을 느낀 것은 잠깐이고 함께 홈스테이하고 농어촌 체험을 하다보면 어느새 '지구촌 한가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는 총 7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대구, 대전, 안동, 평택, 속초, 춘천, 논산, 연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 참가자들은 한국 구석구석의 지방 도시와 농촌 마을 등을 돌아보고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한다. 또한 국내 참가자들의 학교를 방문해 교정을 둘러보고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모국연수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방의 농어촌 체험이다. 참가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농사 일손을 거들거나 어부체험을 하는 등 한국의 산하를 둘러보며 '신토불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거주국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농사일의 수고로움도 느끼고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 우정과 협동 정신도 함양할 수 있다. 전통연만들기, 사물놀이 배우기, 떡메치기, 옥수수·감자 찌 먹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게 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국 연수는 단순히 답사와 관광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

# 소재 다양화... '동포문학' 새장르 형성

## 제14회 재외동포문학상 심사 "수준 높아졌다"



'동포 문학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은 재외동포문학상 심사가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각 부문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하게 이뤄졌다.

‘동 포 문학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은 재외동포문학상 심사가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각 부문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하게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재외동포문학상과 국내청소년 글짓기 공모를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 수준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으며 내용도 과거에는 주로 이민의 애환을 다룬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등 동포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성장하고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근 동포문학상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동포 문학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변화된 위상에 맞게 문학상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은 그간 응모 장르를 다양화하고 청소년부문을 신설하는 등 타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에게 잊혀져가는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단은 올해 신설한 국내 청소년 글짓기 공모에서도 많은 응모 작품이 쏟아져 나왔고, 문학상 응모 국가도 더욱 다양해지는 등 뜻 깊은 성과를 얻었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응모작들의 경향을 볼 때 “다양한 경험을 소재로한 작품이 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부분의 경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이 동포 차세대에게도 잘 이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색을 표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글과 더



불어 우리 동포 2~3세들이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알고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데 재외동포문학상이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신경림, 신달자, 조정권 씨가 참여했고, 단편소설은 최인석, 김형경, 구효서 씨가 수고를 했다. 수필에는 오정희, 복거일, 이경자 씨가 맡았고 청소년 부분과 국내 참가자 부분에는 서하진, 박상우, 권지예 씨가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은 대부분 동포문학상 심사를 몇 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어서 동포문학의 수준과 응모작의 내용 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검증이 거칠 수 있었다.

시 부문 심사에 참여한 신경림 시인은 “고달픈 외국 생활이 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응모작을 읽으며 가슴이 저리기도 했다”며 “수십년씩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우리 말과 정서를 잃지 않고 오히려 같고 닮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보내온 것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신달자 시인은 “동포문학상이 해외 거주 동포들에게 우리의 고유 정서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며 “수상 여부를 떠나서 국내의 많은 문학상 공모에 꾸준히 응모하다보면 작가로 등용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단편 소설을 심사한 김형경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삶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작품성을 떠나 진지하게 글을 쓰는 자세가 무척 고무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작품성 높아 국내 문단 소개도 가능”

청소년 부문 심사를 맡았던 서하진 작가는 “글쓰기에도 타고난 재능이란 것이 있지만 꾸준한 독서가 중요하다”며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글에는 깊이가 있다. 사물과 현상을 외양뿐 아니라 내면까지 들여다보려는 사고 훈련이 글쓰기에 중요하다”고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상우 심사위원은 “개인의 내면이 우러난 이야기일 때 글의 밀도도 높아지고 점수도 많이 받는다. 보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개성과 독창성이 떨어진다. 내면의 이야기에 충실한 글쓰기 훈련이 중요하다”고 응모자들에게 충고했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중국 동포들의 높은 참여와 수준높은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재중국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우리말 교육에 신경을 써온 결과이고 특히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말을 꾸준히 지켜온 덕분이라는 심사위원들의 분석도 뒤따랐다.

수필 응모작을 심사한 복거일 씨는 “동포문학상 취지에 맞게 거주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글 속에 녹아들



심사위원들은 “항수나 이민의 고난사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사회의 현재 단면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주제들이 많아 고무적이었다”고 총평했다.

있는가를 중점 심사했다”며 “경험에 대한 자기 성찰이 글에 들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여구로 맛을 부린 글은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심사위원들은 “감동을 주는 글로 글의 전개와 필력이 매끄러운 작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상작품의 경우에는 심사위원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작품들이 선정됐다.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작품은 누가 읽어도 감동이 있다는 것이다.

오정희 심사위원은 “뛰어난 응모작이 많다. 동포문학이지만 삶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문학상에도 응모하고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부분의 심사를 맡은 작가들은 한결같이 “기성 작가를 모방해 글을 쓰려고 기교를 많이 부려서는 안된다”며 “문학상 응모작들은 진지하고 진솔한 내용을 글쓰기 기본에 맞춰 쓰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줄임말과 비속어가 범람하고 있는데 동포문학에서는 글쓰기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안심이라는 심사평이다.

올해 처음 신설한 국내 청소년의 재외동포 관련 글짓기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응모작이 많았다. 이는 재외동포가 720만명에 달하다보니 친인척이나 주변에 재외동포가 있는 가정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해외거주 체험 소개도 많았다.

3일 간 이어진 각 부문의 심사서에서 심사기준 뿐 아니라 향후 가야할 길을 제시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 각 부문 대상과 우수상 및佳作를 선정했고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상은 공관 일정에 맞추어 각 거주국 공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장**

# “전통가락 익히며 조국을 가슴에 품다”

## 고려인 동포들 남도국악원서 ‘모국’ 체험



남도국악원은 동포 차세대들에게 국악 체험기회를 제공해 모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려고 2006년부터 모국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 남도국악원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 사할린 한인 2세 및 입양아들에게 국악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모국체험-한국을 가슴에 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얼마티 한국교육원 소속 중학생 8명이 참석해 국악을 통해 현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모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에서는 사할린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과 교사 등 17명이 참석했다. 에트노스 예술학교는 올해로 개교 20년이 된 러시아내 명망 있는 예술학교다.

특히 동양학부 예술단은 남북한 문화를 다 소화하고 있는데 사물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북한식 무용을 위주로 배워왔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현지 한국교육원의 협조아래 남도국악원에서 사물놀이, 한국무용을 배우고 교사들은 가야금, 무용, 민요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요청해와 모국 체험이 이뤄졌다. 이번 모국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가락과 춤 등을 배운 것이 무엇보다 뜻 깊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남도국악원은 2010년과 2011년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동포2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려인 동포 대상으로는 올해가 세 번째다.

초청 고려인들은 대상으로 한국민요, 풍물놀이, 강강술래 등 배우기와 공연관람, 윤림산방, 세방낙조 등 진도의 문화유적지 탐방, 서화체험 등 모국의 전통예술과 문화를 접하고 체험했다. 특히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물놀이와 진도북춤, 가야금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남도 국악원의 관계자는 “서양음악의 빠른 템포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국악의 정중동의 멋을 알려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처음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였지만 며칠 사이에 국악의 호흡을 제법 익혀가고 스스로 굿거리의 흥을 느끼면서 매우 재미있어 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워했던 것은 북채를 양손에 쥐고 하는 진도북춤이었고 음식은 삼겹살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힘들고 땀뻑한 연습에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발표회를 마친 학생들이 스스로 감동에 벅차 울먹이기도 했다.

전통음악을 동포 차세대가 배우는 효과에 대해 윤이근 남도국악원 원장은 “국악은 우리말과 같이 민족의 혼과 역사가 담겨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말을 잃어버린 민족은 소멸되듯이 전통문화도 마찬가지다. 한국말과 전통문화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지 한 민족임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동포2세에 대한 국악연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험프로젝트를 담당할 국악원의 정보영 씨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소통의 문제였다”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의 설명을 쉽게 알아듣지



못해서 몸짓과 의태어를 동원하였는데 놀랍게도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어졌다. 그만큼 친해지고 익숙해졌다"고 예술을 통한 교감의 효과를 강조했다.

에트노스 예술학교에서 온 신올리아 교사는 "큰 감동과 선물을 받았다. 열심히 가르쳐준 사물놀이, 가야금, 진도북춤 선생에게 감사드린다"며 "러시아에서 한국음악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로서 전통가락을 전수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참석한 이 따지아나 학생은 "전통가락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대로 사물놀이와 춤을 배우기 어려웠는데 이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며 "돌아가서 한국말도 더 열심히 배우며 자긍심을 갖고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도국악원은 2004년 7월 7일 개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음악기관으로 전통예술공연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기획공연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금요상설을 개최하고 있다.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국악원공연, 국악전문 인적자원 연수, 일반인 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생활화, 남도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활성화 등을 통해 남도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 나갈 전통음악예술의 전당이다

남도국악원은 2006년부터 재외동포 2세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국체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회에 걸쳐 미국, 러시아 등에서 182명이 참여했다. **창**



모국체험 참가자들은 전통 민요와 춤을 비롯해 남도의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서 2주간을 보냈다.

국립 남도국악원은 러시아 사할린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고려인 동포 학생과 교사 25명을 초청해 2주간 국악을 비롯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물놀이  
국립남도국악원

## 동포재단 이사장 '아중동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격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요르단에서 열린 '아중동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11일에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2012 글로벌빌리지'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동포사회 현안 파악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6월 8일에 열린 '제1회 아중동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한글학교에 봉사하는 교사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자"라고 격려하면서 "동포재단은 차세대 육성을 최우선으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스라엘에서는 한글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글교육과 한글학교 운영 현황, 지역동포 사회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 중동지역 한글학교 교사

11월) 주최: 아-중동 한글학교 협의회 주관: 요르단 한글학교 후원: 재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요르단에서 열린 '아중동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 한상대회 성공위한 주관기관회의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6월 19일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공동주관 기관회의'를 열고 한상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강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6월 19일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공동주관 기관회의'를 열고 한상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강구했다.

조병태 한상대회 대회장을 비롯해 동포재단 임직원 그리고 서울시와 매일경제신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관련 행사대행 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 새로 도입되는 '한상특별관' 부스 운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됐다. 한상특별관은 세계한상과 지역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상을 알리고 경제 역량을 키워 글로벌 비즈니스 장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한상대회가 한상과 국내 기업 간의 교류를 넘어서 일반인도 즐겨 찾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홍보 전략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대회를 공동개최하는 서울시는 손님맞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상대상 수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을 위주로 내실 있는 기업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지자체 우수기업관, 프랜차이즈 우수기업관, 첨단관, 미용 및 식품 체험관 등을 운영해 일반인의 대회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 실시

6월18일부터 9주 동안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가 시작됐다. 이번 연수에선 전 세계에서 232명이 선발됐다.

2009년 6월 처음으로 진행한 사이버연수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글학교 교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주관하며 연수 이수자에게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수료증을 받은 교사들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창**

#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위한 사랑의 한글 배움터

## 베트남 사이공 한글학교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린이와 한국을 사랑하는 베트남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글과 한국어 교육에 정성을 다하고 한국의 얼을 담은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김규 사이공 한글학교 교장은 6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호치민시에 한국국제학교가 하나뿐이라서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세들을 위해 사이공 한글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2009년에 설립된 사이공한글학교는 주말학교로 교장 선생을 비롯한 19명의 교사가 120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사 등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모두 무료 자원봉사자들이다. 김 교장은 “많은 가정에서 현지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한글과 한국어 습득이 반드시 필요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그 가족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5천 가구의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가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 법에 의해 한국인이지만 베트남 어머니의 보호아래 성장하므로 한국어나 한글, 한국어문화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며 바쁘게 생활하는 아빠와의 대화가 한국어로는 거의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화 교무주임은 “학교가 문을 열게 돼서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생기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로 가족 사랑이 깊어졌다”고 뿌듯해했다.

학교는 주로 한국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1박 2일의 가족소풍, 어머니들을 위한 한국 요리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의 전남광주지역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중 베트남 엄마를 둔 학생들과의 교류를 매년 갖고 있으며 가족의 달을 맞아 시행하는 장한 어머니, 장한 어린이 표창 등을 통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경남 통영시 초청으로 사이공한글학교 어린이 10명의 고국 체험도 가질 예정이다.

김 교장은 교훈이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자”라며 교육목표로 “첫째,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개발 둘째,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주체 의식 고취 셋째, 2중 언어(한국어, 베트남어) 전문가 양성”이라고 소개했다.

설립 3년 만에 호치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호치민시 총영사관과 한인회의 전폭적인 후원 덕분이지만 공간과 교사 수급 부족으로 더 많은 학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김 교장은 “모국과 대기업의 재정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장**



▲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사이공 한글학교는 주말학교로 19명의 교직원 120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 학교에서는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화합을 위한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 세계시장 무대로 도전 195차례 ‘창업 성공’

실리콘밸리 벤처 한인 선두주자 ‘비컴닷컴’ 마이클 양

“195차례나 거절당해도 굴하지 않고 벤처자금을 조달, 창업에 성공하는 등 10여년 간 4차례 창업했지만 지금도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998년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마이사이몬(MySimon.com)’을 창업한 후 2년 만에 7억 달러(약 8천200억 원)에 매각해 화제가 됐던 마이클 양(50·한국명 양민정) 씨는 인터넷 쇼핑 검색엔진인 ‘비컴닷컴(Become.com)’의 이사회 의장이다.

양 씨는 “비컴닷컴의 지난해 매출이 5천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이제는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쉬면서 실리콘밸리내 인사들과 교류하고, 또 연구하면서 다음 창업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양 씨는 “어떤 기회를 보고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창업이 재미있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14살 때인 1976년 미국에 이민온 후 실리콘밸리에 정착해 애플이나 시스코 등 현재 정보통신업계 선두업체들의 성공신화를 보고 자랐지만 대학졸업 후 곧바로 창업전선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먼저 제록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등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이 모두 달라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마이사이몬을 시작했다. 하지만 ‘창업과 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창업이 녹녹하지 않았다.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내 벤처캐피털 200곳을 찾아갔지만 그 중 195곳에서 거절당했다.

그는 그러나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어 온라인 상거래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전과 확신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구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받 먹듯이 당해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양 씨는 중국이나 인도계에 비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한국계 창업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스스로

에게 질문도 해봤다”며 “일단 한국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창업이 리스크(위험)가 높아 부모들이 안전한 직업인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잇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벤처투자자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는 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환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양씨는 한국 시장 자체가 작아 창업 때부터 아예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창업강국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다.

이스라엘 벤처기업가들은 영어구사가 자유롭고 서구문화에도 친숙할 뿐 아니라 미국내 막강한 네트워크가 있지만 무엇보다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양 씨는 “한국 창업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지난 20년간 영어교육이 진전을 보이고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아 네트워크(인맥)도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씨는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의 젊은 벤처기업가들을 상대로 엔젤투자를 하면서 실리콘밸리 진출을 돕는 등 한국과 미국내 한국계 커뮤니티를 돕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 백악관, 한인 지도자들에 ‘국정브리핑’

## “역사적인 날... 한인들의 미래는 밝을 것”

“미국의 미래를 코리안어메리칸들이 이끌어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백악관 공공업무실(OPE)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워싱턴DC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한인 대표들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브리핑’에 참석했던 한인위원회(CKA) 마이클 양 회장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코메리칸들의 밝은 미래’를 화두에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브리핑은 백악관이 미국내 한인들만을 위해 처음으로 특별히 마련한 행사였다는게 CKA의 설명이다.

워싱턴DC와 보스턴, 시카고와 서부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서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해 참석한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에는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CKA 양 회장과 크리스티나 윤 사무총장, 공동 부회장을 맡고 있는 CBS 리얼리티쇼 ‘서바이버(Survivor)’의 아시안 최초 우승자이자 방송인 권 올씨, 컨설팅·홍보기업인 ‘버슨마스텔러’의 에스터 리 마케팅·뉴 비즈니스 총괄책임자, CKA디렉터를 맡고 있는 보스턴 시의원 출신의 샘 윤 노동부 정책고문과 ‘북한 탈출’의 저자 마이크 김 씨 등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 내내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에서도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담당관과 크리스토퍼 강 대통령 선임고문, 크리스토퍼 루 대통령 보좌관을 비롯해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미국명 헤럴드 고) 등 미 행정부 각 부처의 고위·실무급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한미동맹 현안을 비롯해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이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이나 이민 관련 사안들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주로 설명했다.

특히 미국내 한인커뮤니티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돼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양 회장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 공공업무실에서 6월 7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워싱턴 DC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한인 대표들을 초청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한인교회’의 임혜빈 대표는 “100년이 넘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에서 오늘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1세들의 수고가 오늘을 만들었으며, 그동안의 과거가 힘들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서 첫 사회생활을 했던 에스터 리 총괄책임자는 “미국 대선이 핵심이슈로 부상했지만 한인들을 대변할 언론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게 오늘의 현실”이라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결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KA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주류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취지로 지난 2010년 9월 1.5세와 2세 리더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비영리단체다.

CKA의 롤 모델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미 ‘파워 그룹’으로 활동 중인 중국계 미국인 지도자들의 단체인 ‘100인 위원회(Committee of 100)’이다.

이번 브리핑 행사가 성사되기까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은 “앞으로 한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라”며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장**

이우탁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 대관령 목장을 품고, 동해 바다에 안긴 강릉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면 그만이다. 이끼 위 무당벌레가 칠성무당벌레이건 흥점박이무당벌레이건, 아래턱이 꺾어져 일광욕 중인 생선이 명태이건 대구이건 중요치 않다. 대관령 양떼목장과 자연휴양림에 들러 마음을 정화시키고, 경포호와 주문진 포구에 닿아 몸의 열락을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대관령은 적막하지 않다. 구름과 안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람을 타고 고개를 넘나든다. 높고 공활한 대관령을 기점으로 영동과 영서지방의 기압차가 심해 주야로 강한 바람이 분다. 백두대간 수많은 준령 가운데 바람이 가장 거센 곳으로 통한다. 능선을 따라 곳곳에 거대한 풍차 모양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발 900m 안팎의 대관령 정상 부근에는 국내 유일의 양 목장

이 자리한다. 옛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대관령휴게소 뒤편이다. 6만2000평 면적에 300여 마리의 양이 방목되고 있다. 자작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목장은 12개 구역으로 나뉜다. 양 무리가 한 구역에서 4일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순환방목이다. 1988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관령으로 내려온 전영대 씨가 양떼목장의 주인이다.

철쭉, 조팝나무 등 계절을 따라 피고 지는 30여 종의 야생화가



펼쳐진 아기자기한 목장에서 누구나 양떼와 노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양떼목장은 양에게 건초를 먹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장료 대신 일정액을 받고 있다.

한여름 강릉은 대한민국의 피서 해방구로 통한다. 휴가철 기간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해변은 물론이고 시내가 온통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들로 점령된다. 5일장 분위기가 매일 되풀이된다. 그래서일까? 극성스러운 피로연 등 고유한 결혼 풍습으로 이름난 강릉 사람들도 이 시기에 잠시 옆드려 숨을 고른다.

강릉에는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99칸 사대부 저택인 선교장은 안채, 사랑채(열화당), 별당, 정각(활래정), 행랑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이 창건했다. 원형이 잘 보존된 가장 아름다운 조선시대 건축물로 알려져 있으며, 옛 생활유물 8000여 점을 볼 수 있다. 경포호와 오죽헌 사이에 자리한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란 뜻이다. TV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전국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매일 청량리역에서 정동진역 사이에 해돋이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정동진역 역무원에 따르면 연중 70여 일은 깨끗한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대관령자연휴양림은 1989년 전국 최초로 개장했으며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있다. 원시림의 장대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웅장처럼 펼쳐져 있다. 숲체험로, 야생화정원, 황토초가집과 물레방아, 숯가마터 등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강의실과 숙박시설, 잔디광장, 체력단련시설, 숲속교실 등을 구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관령 양떼목장을 뒤로하고 아흔아홉 구비를 내려오면 이정표가 나온다.

이밖에도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 신사임당의 오죽헌, 허난설헌, 오징어잡이 항으로 유명한 주문진 항구 등이 저마다 다른 색깔로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참**



- 1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가운데 강릉도 양떼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목장을 둘러보며 휴일 하루를 보내고 있다.
- 2 주문진항 좌판에는 아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물려 활기가 넘치고 있다.
- 3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어판장에서 어민들이 주문진의 명물 오징어를 가을벌에 말리고 있다
- 4 강원 강릉시 오죽헌 내 몽룡실에서 열린 '제11회 신사임당 추모제'의 제례에서 축관이 축을 읽는 동안 헌관과 제관, 참가자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
- 5 TV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로 유명해진 정동진은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다.
- 6 한여름의 강릉은 피서 해방구다. 강원 강릉시 경포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참가 신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2년 10월 16일(화)부터 10월 18일(목)까지 서울 COEX에서 ‘제11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동 대회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경제인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영비

즈니스리더 포럼 (Young Business Leader Forum)」을 개최합니다.

미래 한상(韓商)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젊은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개요

- 기 간 : 2012년 10월 15일(월) ~ 10월 18일(목)
  - 장 소 : 서울 COEX
  - 프로그램 : 영비즈니스리더의 밤,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 한상 토크콘서트 등
  - 참가인원 : 약 100명(해외 80여명, 국내 20여명)
-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코리안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후기 \_ 김진원 여수 엑스포 이스라엘관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인과 결혼해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거주하는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이메일로 ‘재외동포의 창’ 소식을 확인하던 중, 이선민 부장님의 칼럼을 읽고 전적으로 동의한 바, 즉석으로 메일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유대인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한국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2천년의 다diaspora 역사를 지닌 유대인에 비하여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보조 등의 사항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저의 개인경험을 들자면, 주변에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이가 98% 이스라엘인으로 자

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맘에 걸립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데, 어찌하다보니 처음부터 한국어를 쓰지 않아 한국에 오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한국어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예루살렘에만 그런 기회가 있는 문제로 다시 한국에 와서 살게되면 외국인 학교를 보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선례처럼 한국인들도 한국의 명절과 의식을 통하여 갖은 모임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음 세대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족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단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독자 후기를 받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면을 꾸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읽으신 후 내용 등에 대한 감상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독 요청이나 주소 변경 요청 등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pr@okf.or.kr](mailto:pr@okf.or.kr)(매월 20일까지)



www.hansang.net

# 제 11차 세계 **한상** 대회

THE 11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2. 10. **16** (Tue) - **18** (Thu), 서울 코엑스 **coex**

Global Korean Strengths,  
**'Hansang Network'**

글로벌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

- |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 | **주관** |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MBN
- | **후원**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